



- 1、教会에 革新을
- 2、社会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70년대를 맞이한 우리교회

목사에게는 영력이 신도에게는 훈련이

총회장 김덕성

우리는 70년대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낸60년대를 뒤돌아보고 기쁨없이 돌아가는 기계에서 듣기싫은 요란한 소리를 듣고 마음답답하게 생각할것이 아니라 앞날의 70년대의 새희망을 걸고 용기있게 전진비약할때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의 우리 교회나교회는 안으로 새로워져야 하겠으며 진정한 교회의 혁신이 일어나야

하겠읍니다 교회의 혁신이 자기목적화(自己目的化)되어 단지 기구의 개혁을 하는 데 끝친다면 어떠한 새로운 것이 일어나지 못한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읍니다 그리고 혁신은 먼저 각자각자가 자신에서 부터 혁신시켜나아가야 하겠읍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를 돌아보와 새로운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인격을 형성시키는 변혁이 있어야 하겠으며 교회를 낱알이 새롭게 개혁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금일의 교직자들에게 엄격히 요구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새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름받은 자로서 부여받은 양무리를 먹이는 사명과 책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동시에 엄격히 자기 훈련시켜야 할것이며 성직자는 이때에 더욱 강한영력(靈力)을 얻어 힘있는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나누워먹이며 이시대에 대처할 영력을 신자들에게 나누워 주워야 할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력의 능력을 받는것은 특히 기도를 통하여 받게 됩니다 영국의 설교자로서 아프리카의 아버지로 불리우고 있는 리빙스턴 이동

지들과 더불어 천야의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능력이 있는 설교를 하였는지 청중 가운데서 500여명이란 수가 새로 믿기로작정했다는것입니다 크게 역사한 이들은 모두 기도의 큰 힘을 받았읍니다 월손감동은 말하기를 내가 마틴의 일기를 보고 인상된것은 그는 많은 시간을 기도에 쓴 것이 다라고 하였읍니

다 또한 교직자가 자기중심의 빠져 교회전체의 유익을 생각지못하고 고집을 부림으로 신자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자기자신도 중상을 받게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운데 하나는 평신도 훈련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대화하는데 있어서는 결국 문제가 평신도의 문제로

돌아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평신도들이 어떻게 해야 오늘에 있어서의 신도노릇을 하느냐에 대하여는 교회가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안에 있고 사회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럼으로 협소한 마음과 사심을 버리고 적극적인 교회와 교직자가 되지 않는한 사회를 리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끌려달아가기도 불가능할것이다 우리는 60만 동포의 구원과 나아가서는 일본사람들에게 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꿈을 갖고 10개년 개혁운동에 적극참여하여 이때에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할것을 다시 한번 다짐 합니다

가르치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내 나라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앎된 점을 깊이 반성하여 내 겨레를 위해 수고하며 봉사하려는 고상한 정신을 넣어 주려고 나는 얼마나 애써 보았는가? 나를 바로 사랑할줄 모르는 존재가 어찌 나와 같이 남을 바로 설칠수 있으랴!

결국은 건전하지못한 비굴한 인격으로 내 가정의 자녀들과 교회의 젊은 이들은 끝없이 자라고 있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버려둔채 역사의 페이지는 더러워도 쉬지않고 넘겨져가고 있습니다 항가리를 비롯하여 많은 이웃의 적은 나라 여성들이 외부의 무서운 힘에도 굴하지 않고 지하에서 등잔 불 밑에서 자녀들에게 자기나라 말을 가르치고 민족의 일을 넣어 주며 어려운 현실을 용감히 살아간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유명한 지휘자 미카엘이 합주단을 연습 시킬때 가장 적은 악기 피콜로를 불던 단원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나 하나쯤이야 하고 잠시 손을 내려 좀 쉬려고 하던 찰나에 미카엘은 손을 높이 들어 중지! 피콜로는 어디 있느냐! 고 외쳤읍니다 그는 한 사람 개인의 음조를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음악을 합주 하시기 위하여 나의 생활의 음조를 요구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음이 들리지 않을 때 주님은 그것을 심히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음악은 불완전한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생들은 자기가 제일이니 무엇이고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자만의 공통적인 죄를 범하는 동시에 나 같은 거야 뭐 하며 공연히 자기를 아무렇게나 무시해 버리는 자만의 공통적인 죄를 범하고 있읍니다 구속 받은 우리에게 는 자만도 자비도 있을 수 없읍니다 다만 나의 주님은 나와 함께 무엇이라도 하실수 있다고 말 할수 있읍니다

(2면에 으로)

1970년 2월 여전도회 월례회를 위하여

영혼의 양식

알려진 자의 명예 (요한10:1~18)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고 양하나 하나의 이름과 특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한 개인은 그리 대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많은 대중 가운데 한사람으로만 자기와 이웃을 소홀히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우리에게 내려진 복음은 참으로 놀랍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나같은 죄인 한사람도 빠지지 않으시고 소중히 살피시며 전사하신다는 것 입니다 주님은 내가 당하는 모든 억울함 고통을 다 아십니다 내가 처하고 있는 남다른 환경을 이해하시며 연약한 내가 환경에 지배되기 쉬운것도 잘 아십니다 그아심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몸소 그 모든 고난의 절정까지

다 체험하시고 이기셨음으로 미쁘사 나의 완전한 위로와 도움이 되어 주실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를 잘 아시고 위로 하시며 함께 하여 살피시사 나의 전 생활을 감찰하시고 그뿐 아니라 나 하나를 요구 하신다는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알려진 자로서의 영광스러운 명예를 진정으로 감당하며 사는 나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것입니다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속한 교회 가정 이웃 생활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여 내 형제에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다는가? 끝없이 미약한 내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주님은 오늘도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라...」 축대를 옮기리라...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이세벨을 용납한다(계시록2:4~20)」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내가 속한 교회에 경고 하십니다 현재 나의 눈앞에 입장곤란하고 구원은 것만 생각하여 그저 적당히 편하게 살면서 나 하나 쯤이야... 다 그렇게 하는때 나라고 뭐... 등의 구실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빛을 피하여 살아왔는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이웃에게 좋지못한 영향을 끼치며 내 나라를 썩먹는 일로써 사육과 썩어질 육신의 안일만을 도모 해온 나를 깊이 살피 보십시오 따라서 내가 하여야 할일을 얼마나 많이 회피하여 왔는가? 내 가정의 자녀들 내가 속한 교회의 젊은 이들이 온전한 신앙안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나는 얼마나 기도 했는가 수고 했는가 이와같이 특수한 환경안에서 그래도 자녀들에게 내나라 말을

전 도 하 는 교 회

관서지방 사경회 개최

1970년을 맞이한 우리 관서지방은「전도하는 교회」란 주제하에 정초사경회를 가졌다

大阪 兵庫 구역은 大阪 교회에서 연합으로 집회를 가졌고 京都구역은 京都 교회에서 広島미요시 구역은 広島교회서 사경회를 가졌다

① 大阪교회에서는 강사 김원지 목사 김영일 목사를 모시고 1월2일저녁 3일저녁 4일저녁의 3일간의 집회를 하여 매일밤 약100명의 출석으로 은혜가운데 진행하였다

첫시간은 김원지목사의 인도로 누가11:1~13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라」의 제목으로 열렬히 설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때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 「의심」하고 할때가 현실이 아니였는가?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신앙적각성과 기도없이 새 소망과 새 삶의 길이없다는것을 명심하였다

3일저녁은 로마10:14~21의 말씀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날」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하지만 정말 생명을 걸고 전하는 일이있었는가? 하고 강하게 역설 하였다

4일은 오전예배를 각 교회에서 지키어 저녁은 연합사경회예배를 모여 강사 김영일목사(현재대관교회목회)가 마가16:15~16의 말씀을 가지고 사경회주제 「전도하는교회」그대로 제목을잡고 1970년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는 은혜 깊은 말씀을 하셨다

이번 사경회에는 낮공부는없었으나 참은혜중 사경회를 마쳤다

② 京都교회사경회는 같은 날자로 강사김효식목사 김영일목사 백상근목사 인도와 낮공부도 두두여선교사의 공부가 있었다

③ 広島교회사경회는 최경식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1월2~5일 사경회를 가졌다 총회10개년계획의 표어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으로」

와 선교 3대목표 「교회에 혁신을」「동포사회에 변혁을」「세계에 소망을」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에 있는 교회가 총회각교회의 끝없는기도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제일동포에 전하는 선교에 같이 참여 하여야 하며 새해를 마지하는 지방교회가 새로운 각성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2일저녁부터 4일 오전까지 広島교회에서 사경회를 지켰고 참석자가

약40명 모였고 三次교회는 4일저녁부터 5일저녁까지 사경공부를 가졌다 감사하는것은 三次교회가 강사를 모시고 사경회는 하는것은 과거에는 볼수없는 사실이며 놀라운 발전이며 큰 은혜이다 참석6명 도 감사하는것은広島교회 김신환목사도 건강하여 같이 집회를 가졌다는 것이다

川崎교회 申先生(神學生)도 참석하여 노래로 많은 봉사를 하였다

끝으로 관서지방교회장 전영복목사는 九州서남지방 각교회의 사경회인도도 많은 봉사를 하셨다 새해를 맞이하는 관서지방각교회의 크신 발전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관서교육부)

카나니 교회 총회장

존손박사 부처 내일

KCC의 선교 사업에 기대

우리총회와 자매교회인 카나니장로교회 총회장 E.H 존손박사와 그 부인이 지난 11월2일부터7일까지 우리재일한국교회와 일본기독교회를 방문하셨다

이번의 오신 목적은 총회장으로 세계각처에 있는 자매교회들을 방문하여 선교의 근본대책과 교회의 사회적책임을 재검토하기위해서였다

존손박사는 과거 카나니교회 해외선교부 총무로서 우리재일한국교회와 깊은관계를 가졌뿐더러 WCC(세계기독교협의회)에서 직접책임을 맡으셔서 전쟁과빈곤문제 특히 아프리카의 「나이제리아」와 「비아호라」사이에 가로막힌분열을 화목게하여 세계적인지도자가 되셨다 박사님은 일본에 오시기 전날까지 「제네바」에서 이런문제들을 다르고계셨던것이다

우리총회서는 존손박사부처를 기쁨으로 맞이하여 판동 중부지방에서 회의를 가진후 관서지방 대관에서는 우리 총회장 김덕성목사를 비롯하여 각기관대표들과 함께 대환영회를 가졌다 그후 대관교회서 온 교회가 합동하여 특별집회를 가졌으나 박사님은 급격하게 변환하는 세계에서 교회가 지니고나가야할 선교사명과 재일한국교회의 혁

신적 사회적책임을 대하여 감명깊은 몇세이지를 그 자리에 모인 200여명의 신도들에게 남겨주셨다 집회후에는 청년들과같이 「세계정세속에서 사는 사회의 책임」이란 제목아래 시간갈줄모르고 밤늦게까지 진지하게 토론회를 가지셨다 박사부처는 7일 저녁 台灣을 향하여 떠나셨으나 떠나실 때까지 K C J 선교사업에 관하여 카나니교회의 협력자세를 말씀하셨다 특히 선교60주년기념사업에 깊은관심을 가졌뿐만아니라 앞으로 더욱 협력하겠다는 약속과 이사업을 통하여 맺어지는 세계적인공헌을 크게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

<복음신문>구독료

감사합니다

지상을 빌려서 영수를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西新井 教会	5,000
新 儀 "	5,000
布 施 "	5,000
岐 阜 "	3,000
北 部 "	15,000
平 野 "	10,025
広 島 "	5,000
西 成 "	15,000
京 都 "	17,630
大 阪 "	15,000
武庫川 "	6,000
西 宮 "	5,000
宇 部 "	2,000

주 장 70 년 대 의 개 막

—사람은 어대로 갈것인가?— 이 질문이 70년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왜 이러한 질문이나오며 이 과제를 세워야하는가 그것은 탈세계에 사람이 갔다왔다는 것이 사람의 과학에 대한 맹종을 하게된 원인이 되고있다 오늘날 사람은 과학에 맹종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고된과 고통의 생활 불편한 생활을 하고있다 60년대에 사람이 자기 편리를 위하여 과학때문에 사람이생각도 못하던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혜택을 입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람은 큰 실수를 했으니 반성해야한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주고있는 공해문제이다 사람이 과학의 발달 때문에 죽어가고 중병에 걸려서일어나지 못하고 공기가 더러워져서 숨쉬지도 못하는 이러한 현상에서도 사람은 어찌 고칠방법을 찾지 못한다 이웃에서 공장기체때문에 악취 때문에 죽어가고 교통사고로 죽어가는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거의 없다 사실 인간이만든 문명에 대항한 힘조차 사람에게 없다

동물은 자연에 순응하여서 추우면 바위틈에 들어가 살고 더우면 나무그늘 밑에서 자고 열매가익으면 따먹고 살고있기 때문에 자연을 극복 하여서 문화를 만들줄 몰랐다

사람은 이와 반대로 추우면 따뜻한 방을 만들어 살고 더우면 서늘한 쿨러를 만들고 바다가 깊으면 배를 만들고 하늘이 높으니 나는 비행기를만든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그 문화가 자기가 잘살고편리하게 살기위한 이기주의적인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남이야 죽던 말던 그야 불편하던말던 나만 잘살면 나만 편리하면 하는 그 이기주의적 생각에서 나온 문화가 하루에도 수만명씩 공장의 기계에 다쳐죽고 악취에쓰러져 가고 교통사고로 죽고 식품품 중독에 사람의 생명이 별개의 생명과 다름없이 사라져 간다 이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과학에 맹종하여서 자멸의 과정에 이르는 것이다

이 현상은 자연을 극복하지 못하고 순응하여서 미개한 생활을 하는 동물이 밝은것같은 과정을 사람이 가고있다

과학문명에 순응하여 자멸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이 자연을 극복하여서 과학적 기능으로 문화를 만들어 내듯이 문화를 극복하여서 사람이 사람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이 지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회복 해야만이 70년대에 사람이 살길을 찾게된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으로서 이 하나님의 정신적 형상을 내마음에 가질때에 비로써 내 하나님이지은 사람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 살던 그 생애를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준 주 예수의 정신이다 죄지은 인생이 먼저 자기 죄에대한 통곡과 남을 위해서 살지못한 것을 한탄한 탄식과 남을공격하는 마음에서 자기 잘못의 가책을 느끼는 거기에서 출발할때에 비로써 사람이 사람질 할 것이다

70년대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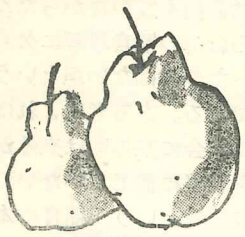
(원)

川 西 教会	5,165
品 川 "	3,000
川 崎 "	5,000
미남교회도 빨리보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文書委員會	
(1번 부터)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정황안에 서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또한 나를 요구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스러운 능력을 따라 「나는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고 힘없는	

나를 지금도 계속 부르시며 격려 해 주십니다

× ×

주님이시여 그 크신 은혜를 감사 하읍니다 연약한 저를 도우시사 이때에 저의 처소에서 주님께 알려진 자의 명예를 잘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온 땅위에 주님의 높으신 뜻이 이루어 지옵소서 예수님의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아 멘—



韓国旅日記

吉田源治郎

私の訪韓は、まず船旅から始められた。10月頃の瀬戸内海は静かであった。関西汽船と提携している「アリラン号」（韓国海運KK）には、約150名位の船客があった。

私は船のロビーに大型の聖書を置いていた。一人の老婆が一この人は仁川へいくとのこと一私に口を切った。

「先生は牧師さまで。私はアルゼンチンから帰郷の途中です。エッ、韓国へ伝道に行かれるんですって？御苦労さまです」

私は、このあたたかい心にふれて、辛うじて涙をこらえた片隅に、四、五名の婦人たちが固まって、何かガヤガヤと話していた。

「みなさん、この絵ハガキは、キリストさまの絵ですどなたにでも差し上げて下さいませんか。まだ100枚近くここにありますから」この人々は、済州島（チェジュ島）にいく人を主として韓国の町々へ帰る人々らしかった

100枚目のキリスト教名画エハガキは、ほとんど船の中で、ひっぱりだこであった。

やがて、小倉に到着。潮の逆流が急であったとかで、午後の到着がとうとう三時頃になった。

岸には、今津一葉教会の長老をしていたK兄が若い夫人と共に、迎えに出ていた。船の事務長に、一寸上陸させてもらいたいと交渉すると二時間以内に帰船することを条件に許可してくれた。

「一寸、風呂へはいって来ますから」というと「風呂なら、先生の部屋にもシャワー・バスがありますよ」とのことであったが、私にとってあたたかいのは、バスのお湯のみではないのであった主キリストにある信仰のあたたかさが、旅人にとっては何よりのもの。K兄の部屋へ行くと、風呂のお湯がわいていた。いっしょに早い夕食を少しばかりいただいて、祈りをいっしょにささげて早速帰船した。小倉の船つき場は、Bさんの職場の近くである。

やがて、五時。船はブサン（釜山）を目指して出航した夕食には、洋食が出た。テーブルを囲んだのは、アメリ

リカの宣教師で、全州にアメリカン・スクールを経営しているというBさん。話がはずむ。

バプテストの宣教師らしい今日は、福岡から来たのだという。

「韓国での宣教の状況はどんなでしょうか？」という質問に答えてBさんは一

「全州へもぜひ、立ち寄って下さい。そして、学校を見て下さい。アメリカ人の子供のみでなく、スイス人やこの国へ海外の国々から来ている人々の子弟をあずかって教育をしているのです。私、マネージャーです」

見るとBさんは、大きな映写機らしいものやテープレコーダーらしいものをいくつか大型の荷物にして携帯していた私は、その後、全州へいったとき、メソヂスト系の大学からBさんに電話をした。

「とうとう全州まで来ました。でも、アイム・ソーリーこのたびは、すぐ光州まで行かなくてはならないので

そんなわけで、私はBさんのマネージャーしているアメリカン・スクールをとうとう見

学しないで翌朝早く、光州YMCA総主事の金天培さんの車で一路光州目指して出発した。

アメリカがどんなに韓国に関心を示しているか、我々日本人の想像の外であった。私は光州のツーリスト・ホテルでドクトル・ホンの招待で朝食をとっていたら、30名前後のアメリカ青年が他の一隅で朝食をとっていた。

聞けば、ピースコープ（アメリカ平和部隊）の一群で見知らぬ韓国の壁地の家庭にまっすぐにはいりこんで2年間文字通りの奉仕をしているのだという。その多くは、学校の教師として各村落にはいり込んでいるということだ。時時、光州一この地方の学園都市で、ピースコープの一中心へ出て来て、ボス（全体の総卒者）に会って何かと話し合いをし、アドバイス（助言）を受けるのだそう。私は若若しいこの人々の気配にいたく打たれた。（つづく）

（筆者日本キリスト教団西宮一麦教会、会津二葉教会牧師、社会福祉法人神戸イエス園保育コンサルタント）

金承俊牧師委任式

去る11月23日午後3時、在日大韓基督教総会中部地方会の主催で白南哲牧師司会のもとに岐阜教会において、金承俊牧師委任式が厳粛にかつ盛大に行なわれた。讃美歌に続いて金安弘牧師の熱心なる祈りがあり、更に徐永均長老による聖書朗読に続いて聖歌隊の讃美があり、そして朴命俊牧師による説教がなされた。ヨハネ福音書21章15節以下の「ヨハネの子シモンよ、わたしを愛するか。」と三度も云われ、そして、「わたしの羊を養いなさい。」といわれたイエスの言葉を通して、一切を捨てて、わたしの羊を、イエス・キリストが委ね給うたその羊を全身全力、死を賭けてでも、養い伺い、守って行くようにとの力強い説教を下された。それから誓約のうちに、委任宣言がなされ続いて安道宣牧師の勸勉があり、牧師に対し、そして該教

会員に対する適切な勧めと励ましの話をしてくださった。さらに続いて記念品進呈があり、それから洪永其牧師の祝辞があった。まことに将来の僑胞社会に向かう明白な姿勢を明らかにして下さった。それから祝電披露があり、さらに続いて、金承俊牧師の答辞があり、それから頌栄を唱ったのち金牧師の祝詞をもって終った。該教会の金炳琪長老の挨拶に続いて、直ちに第二部の交わりの時間には入った中部の各教会から、又岐阜県本部団長、議長をはじめ各方面からたくさんの方々が出席して下さった。まことに祝福された日であった。これみな総会全体の喜びであるのみでなく、中部地方の、又当該教会の喜びでもあった。今は終りではなく、今から始まるその時を告げる日である。これから、一同がどれ程祈りをもって支えて行くかにある。

特別講演会 於小倉教会

西南地方の小倉教会青年会では、約三ヶ月前から祈り計画して、N・C・C少数民族問題委員会委員であり、東京地裁裁判官である、中平健吉先生を招いて、「在日韓国人問題と日本人」と題して、11月16日、午後2時から4時まで小倉教会で、特別講演がなされた。

11月15日午後3時から、牧師崔昌華氏をはじめ、執事金敏子、会員全珠子、三名で小倉駅前で、ビラ1500枚を配付した。

講演会には韓国人信徒30数名、日本人信徒十数名が参加した。

中平先生は「一日本人キリスト者として、韓国人問題に取り組むのは、戦争責任告白に対して、積極的責任を負うことであり、日本人キリスト者が積極的に取り組むべきである。又韓国人の法的地位問題が解決されるため努力すべきである」と感銘深い言葉で語られた。日本人牧師から真剣な質問がなされた。

この会のため、多くの会員が祈り協力したのであり、将来もいろいろと研究にはげもうと心に誓い合った。とのこと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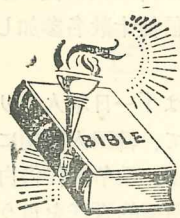
70年代の幕あけ

——人間、その行くえを求めて——

1. 70年代の幕あけについて私たちが考えられることはこの10年は人間の問題について考えねばならない年代であると思われる。60年代はアポロの月飛行によって意味する科学の頂点に達した、この人間がおごり高ぶって、創造主である神を忘れた不幸者の生活をしてきたということである（詩69:9）。聖書の教える強い者が自分だけを喜ばせることを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御旨に反する自分だけを喜ばせる生き方をしているのである。（第1コリ10:6～10）このことは隣人を顧みることをせずに自分の為には隣人が死のうが病気をしようが餓死しようが我かんせずといった気持ちでおるのだから公害によって地域社会に迷惑をかけることを少しも気にしないエコノミック・アニマルになっている（出16:20）
2. 人間が動物とちがうのは文化を持っているから人間は誇っている。それは動物は自然に順応して生活しているから、文化をつくるのが出来なかつたのである。人間は自然を克服して人間の便利な文化をつくって生活しているが、今日人間はこの文化に順応しているという大きな罪を犯している。（創10:10）人間はこの文化を克服していかねばならない。これが出来ない限り人間は公害によって他人を苦しめるだけでなく自分

を苦める結果となるからである（創11:9）。神様が人間をつくる時に神の似姿によって人間を創造された（創1:27）そのことは神の心を心とした人間をつくられたということである。そのことは隣人の重荷を負い合う共存の繁栄の道だけであつたわけである（ガラテヤ6:2）。

3. 人間の問題が解決されない限り人間は自滅するとジャーナリストは叫んでいる。それは人間の為につくった文化によって人間を人間と見ないで物として見ているこの悲しむべき現実を見ているからである。文化の克服は人間を自分の愛を注ぐべき対象としてみて、命を捧げた主イエスにならう者となることである。隣人は私の助けを必要としている（ルカ10:37）。重荷を負うことは人間として当然のことである。しかし人間は他人の犠牲の下で自分が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を知らずに生きている（第1コリ8:14～15）キリストはご自分を喜ばせることをしなかつた。このキリストの心に人間が帰る時に始めてこの世は住みよい所となる。自分の持物がいかに豊かであってもそれはしよせんなくなるのである（第1ペテロ1:24）。私たちは神より受けた恵により忍耐と慰めをもつて隣人に奉仕する時に人間の生きがいを感じるのである（第2コリ8:9）（金元治）



聖 書

主と共にある一年

マタイ 1:18～25

1. 「わたしを遠く離れないで下さい。悩みが近づき助ける者がいないです」と旧約の詩人はうたった(詩22:11) 私たちも来る一年間がどんな悩みや苦しみがやって来るかも知らない。その時になってはどうにもならなくなるので私たちはこの詩人と同じように、主よ私のそば近くにいて助けて下さい、と祈らずにはおれないです。人間の悩みは人間の力ではどうにもならないのがほとんどでありますシオンを選んで安住の地としてイスラエル人が定めたのもそこに神が共に在すという約束があったからである(詩132:14)。ヤコブは父母の下を離れて行くあてもなくさまよい歩く時に主が彼と共にいて彼を見捨てないと言われたので、その主の言に勇気づけられた(創28:15)。

2. 主イエスが生まれる前に予言者イザヤを通して、主は処女より生れ、名前をインマヌエル、既ち神共に在すという意味の名をつけるようにとのことであった(イザヤ7:14) このことは主イエスが神様と共におられると同時に私たちも主と共に在るの意味である。主は天上で支配者として私たち人類を見下すようなことをなさらずに、直接人間の体をおびてこられたわけである(ピリピ2:6～8)。神共に在すということは言が肉体となって、私たちのどまん中に常に共にいますということである。(ヨハネ1:14)それは単に困った時の神頼みとして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では

なく、イエスという名の示すように、罪の許しを得る神の救いの業の成就のためである(ローマ6:22)

3. 神共に存すということは伝道の力になっている。パウロが迫害のさ中に伝道している時に、主が夢に現れて、恐れるな語り続けよ、あなたには私がついている。だれもあなたを襲って危害を加えるようなことはない、といって励まして下さった(行18:10)。エノクは神と共に歩んだので死を見ないで神の国に移された(創5:24)。アダムとイブは

神と共にいる時には罪を犯さなかったのに、神と別れていて罪を犯した(創3:6)。神の力によって、イエスは中風の者を治してあげた(ルカ5:17) 二、三人主の名で祈る時には主も共にいますといわれた(マタイ18:20)。このことは私たちの切なる祈りに主も共に加勢して下さるとのことである。私たちは本当に主と共にある生活によって、罪より離れ、神の恵に近づくのである(ヨハネ12:26)。

(金 元 治 西成教会 牧師)

中部地方教役者祈禱会

去る12月8日(月)浜松の李禎烈長老宅において教役者祈禱会がもたれた。出席者は朴命俊牧師、金安弘牧師、金承俊牧師、安道宣牧師、申英子伝道師、それから本国からこられた、金浩植牧師、鄭洵發牧師そして李禎烈長老の計8名であった。

日本中どこを探しても他にないといわれる程に有名な浜松の李式冷麺を食べて、寒い寒いとガタガタ震えた。

奨励は李禎烈長老がして下さった。「あなたがたは自分の知らないものを拝んでいるが、私たちは知っているかたを礼拝している。」を中心としてヨハネ福音書4章19節から24節の御言葉を説き明かして下さった。「知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である。人間

はあまりにも知らないことをやるが多い。礼拝をしても、一体何に礼拝を捧げているのか分っていない場合が多い。多くの人々が悲しみ、泣いている中には入った人が自分も悲しくなって泣き、しばらく、たっぷり泣いたあとで、我に帰って何のために誰のために泣いたのか分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あったという。真の神を知ってこそそこに霊とまことをもって礼拝しうるのである。あのヨブを見よ。一切の財産、子供たちの全てを失い、しかもはれもので苦しんでいるヨブを見た妻は、そんなにまで不幸と苦しみで陥れる神は、呪って死ねというが、それでもヨブは「あなたの語ることばは愚かな女の語るのと同じだ。

我々は神から幸いをうけるのだから、災をも、うけるべきではないか。」と云って、くちびるをもって罪を犯さ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一体どこから来ているのであろうか？それは全能なる神を「知る」「知っていた」という所にあったからではないだろうか。本当に知ることが大切である。羊飼いはその羊を本当に知り、羊も自分の羊飼いを知らねばならない。「本当に知る」ということの中に愛も生ずるのであり、一方が呼ぶとき、近づくとき、喜びが歓迎があるのだと。知る所にこそ、心も通ずるのだと以上のような深い深い奨励の言葉であった。第二部には入って申英子伝道師の発題による討論会をもった。資料は「灯台」新聞にある、「在日大韓基督教教会の改革」というレポートである。いろいろな問題提示がなされた。教会と社会との二重倫理、名前の問題、家庭の問題等、これらの責任が我々に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深い反省がなされた。つまり福音的に生きようという時に具体的にどのように生きることなのか教えられなかったのだと。勿論、家庭内での問題を教会や社会にぶつけて責任を負わせている面もなかった。しかし、多くの問題をまとめて二点にしばって見た第一に福音というものを本当にどのように理解しているのかという福音理解の問題、第2に愛の業に励むという点が無かったのではなかったかという従の線に対する横の線が明白に打ち出されていなかったという点である。これに対していろいろと討論がなされた。そして、そこには二つの線が感じられた。福音を正しく理解すれば横の線も出てくるのだという考えと、いや今までそう云って来たが、福音福音と云って来たが、結果

的には、何も実がなかったんだから、その福音理解に欠陥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考えである。ある考によれば第1に教会に来るには来るが聖書を本当に信じていない。第2に愛愛というが福音の本当の十字架の愛を知っていない所から今日の問題が起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のもあった。

或る者いわく、私たちが討論するとき、三つの態度があると。第一、そんな考えは取るに値しないといって無視してしまう態度、第二、ある問題が提示されるとき、ただ繰り返しのように伝統的なものでもってのみ答え処理しようとする態度、これらは何の進展もないというのである。では第三は何か、それは、問題は一体何なのか、何がより真実であるのか、充分に討論してよりよいものと思われるものに対しては、それに向かい自らも変化しうる態度が必要であると。一同がこれ聞いて全く同感したのである。つまり総まとめして下さったのである。その結果、結論として例のリポートはまだ続く故によく読み、全体をみて、更に討論して行こうということになった。

更に私たちの反省として説教の貧困さを問題にした。ギャギャと騒音だけのする雲の上の説教ではなかったらうか？聞けば聞く程、慰め所がますます混乱されて、ああこんな話なら聞かなければよかったのに、仕事も家庭も一切を捨て来ているこの貴重な時間が勿体ないと思われる雨の無い、不安を与える雲の入り乱れた説教ではなかったらうか？日曜日の来るのが待ち遠しく、その話を聞けば、一週間重労働をしても耐えうる力と喜びを与える所の心底から魂を打ち破り貫ぬくそんな神の言葉の代言としての説教がどうして出来ないのか？

教会の集会などにご利用を

教会の皆様には一泊2食付、サービス料などすべて込みで、¥1500.-です。
「ヘルストロン」保健装置を無料でご使用できます。
また、このルームにはキリスト教書籍を設置。

在日大韓基督教教会 指定旅館

上 椿

代表者 金 京 秋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椿
電話 富田 (073991) 445~6
大阪市 北区 曾根崎町2-21
電話 大阪 (06) 341-2162

